

## 한국 성인 남녀의 미혼에 대한 인식: 척도개발을 중심으로\*

정 태 연<sup>†</sup>                      정 혜 진                      은 화 리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미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한국 성인 미혼 및 기혼 남녀 490명(남: 244명, 여: 246명, 평균연령 = 35.32세)을 대상으로,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 좋은 점(혹은 유리한 점)과 나쁜 점, 혼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을 물어보는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각 질문 내용은 경제적 측면, 관계적 측면, 성격적 측면, 자아관련 측면, 가족적 측면, 사회제도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 혼자 살 때 좋은 점,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에 대한 문항을 구성한 후, 한국 성인 총 800명(남: 400명, 여: 4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은 5개요인(24문항, 총설명량: 61.7%), 혼자 살 때 좋은 점은 6개요인(29문항, 총설명량: 61.4%),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은 6개요인(31문항, 총 설명량: 64.75%)이 추출되었다. 이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400명(남: 200명, 여: 20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인식차원에 대한 척도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 사회의 미혼 및 결혼 관련 변인들과 현상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미혼, 결혼, 출산, 측정도구개발

\* 이 논문은 2010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전통적으로 결혼은 한국사회에서 자식으로 서의 의무요, 인간으로서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할 의례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문소정, 1994). 따라서 결혼적령기에 이른 성인 남녀는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었으며, 결혼과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족 생성은 한국사회 가족의 보편적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형태의 변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혼인율의 감소와 이혼율의 증가이다(조혜자, 방희정, 2005). 2010년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49세 시민거주자들 중 10명 중 4명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과 비교했을 때 7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1970-80년대의 남녀 대학생 대다수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지만(유영주, 1976; 정현아, 1984), 2005년 미혼남녀에게 결혼관을 묻는 조사에서 미혼남성의 약 25%, 미혼여성의 약 48%가 결혼을 해도 안해도 무방하거나 결혼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응답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미혼자의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중으로 물어보았을 때 남성은 '결혼할 경제적 기반부족'(35.7%)을, 여성은 '나의 일에 열중하기 위해(26.2%)'를 대표적으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부, 2003).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 고학력과 전문직 여성을 중심으로 한 미혼율의 급격한 증가는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0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1990년대는 1.59명, 2000년에는 1.47명, 2005년에는 1.08명으로 급감하다가, 2009년 1.15명, 2010년에는 1.23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통계청, 2010),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2.1명에 여전히 못

미치는 낮은 출산율이다. 낮은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는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변화시키고,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국가재정의 약화, 노인부양부담의 과중,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박은주, 전형미, 2011).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미혼의 비율이 증가하고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미혼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먼저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초혼연령의 상승과 불임부부의 증가가 해당된다. 201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1.8세, 여성 28.9세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통계청, 2010), 우리나라에서 매년 4만 쌍의 새로운 불임부부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정례, 2005).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여성의 자아육구와 사회참여의 증대가 미혼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이 교육을 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좋은 직업과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자기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Jacobs, 1996).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기혼자로 하여금 앞으로 자녀를 출산할 의사를 줄이게 할 수도 있다. 결국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 및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한 비용의 증가는 1자녀만이라도 제대로 키우자는 자녀관을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산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이삼식, 2006). 또한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좋은 직장을 얻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

는 것을 추구한다. 이로 인해 여성이 경제에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녀를 가진 부부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둘 다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제도적 조건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와 달리 여성의 직업적 경력추구와 고학력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음에도 일과 결혼 및 출산이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사분담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출산부담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면서 혼인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세 이상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연구에서, 미혼남녀는 기혼자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손승영, 2005). 또한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 모두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결혼 관련 변인보다 직업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성이 남학생이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정태연, 2006). 이것은 결혼이 과거에 여성에게 제공한 생계의 유지와 지위의 향상과 같은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함을 시사한다(Goode, 1982). 결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자녀 필요성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1997년에는 73.7%인 반면에, 2005년에는 23.4%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력 저하의 주요한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가치관적 요인들은 미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과 출산이 한국사회의 성인남녀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대해 알아본 연구에서, 장래 결혼에 대해서 응답자 중 143명(95.3%)이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7명(4.7%)으로 대부분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반드시 낳아야 한다’가 51.3%로 나타났고, ‘낳아도 좋고 낳지 않아도 좋다’라는 응답이 45.3%로 나타났다(황지영, 2007).

이러한 연구 결과와 혼인율 및 출산율의 감소 현상은 상반된 모습을 띠는 것처럼 보이나, 그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겼던 가치관이 이제는 해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로 변화한 것이며,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과거에 비해 상승한 것이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우세한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결혼이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결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무엇이 있을까? 먼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허용되고 상호보상적인 친밀한 관계에 참여하고자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결혼을 이르도록 하는 동기요인이 된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사람들이 결혼하도록 가하는 사회적 압력이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관점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결혼을 하는데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되어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김경신, 이선미, 1998; 송재희, 1988; Buss, 1985; Feingold, 1990; 1992).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에는 사랑과 정서적 안정, 신체적 매력과 성, 부모의 인정, 경제적 안정, 가족을 갖고 싶은 욕구, 이미 결혼한 동료의 영향, 성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얻고 싶은 욕구, 자녀를 갖고 싶은 욕구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일대일 관계들의 숨막힘, 뒷에 빠진 느낌, 자기발전의 장애물, 역할 수행과 기대에 대한 복종 등과 같은 결혼으로 인한 제약점들을 가질 수 있다(Stein, 1975; 정현숙, 최연실, 유계숙, 1998에서 재인용).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선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져왔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결혼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알아본 황지영(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에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남녀 모두 ‘행동 또는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어서’(36.7%)를 뽑았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으로 조사된 것은 남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 책임이 무거워서’(23.9%),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16.9%)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하는 가치관이 그들의 결혼관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들은 결혼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사회적인 제약이 많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혜자, 방희정(2005)의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한 이유

를 여성의 가족내 관계적 역할, 여성의 직업 역할과 가족역할로 나타나는 여성의 관계역할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결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미혼생활을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독신생활로 이끄는 유인 요인에는 직업경력, 경험의 다양성, 자기 충족, 심리적 자치감, 흥미를 일으키는 생활유형, 변화와 실험의 자유, 이동성, 친밀한 친구관계의 지속, 지지조직에의 참여 등이 있다(김태현, 전길양, 김양호, 2002). 결혼적령기에 놓인 사람들로 하여금 결혼을 밀어내고, 독신으로 당기는 요인들은 미혼율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0년 30대 연령의 미혼율이 29.2%로, 2005년 21.6%보다 7.6%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의 경우, 2000~2005년 사이에 미혼 여성의 비율이 20~34세는 10.5%에서 19%로, 35~39세는 4.1%에서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되었다(통계청, 2010).

그러나 미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결혼 제도를 외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혼이면서 결혼한 적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는 결혼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미혼 남녀 스스로가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경우에도, 결혼이라는 발달과업 혹은 사회적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개인적, 상황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이라는 현상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결혼은 그 자체로서 결혼 적령기에 있거나, 그 시기를 지난 성인남녀와 그들의 부모에게 큰 관심거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중요한 발달과업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

해를 위해서는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모두 다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출산을 저하와 미혼율 증가에 핵심 원인이 되고 있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하여 사는 삶과,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한 여러 특징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 관련 변인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혼인율과 출산율의 감소의 원인을 찾고, 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반대로 독신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독신 동기요인을 알아보거나, 그들의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광고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혼자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을 늘리는 데에 기여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미혼 자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초혼연령이 증가되면서 잠재적으로 결혼을 할 가능성은 있으나 미혼 상태의 시기가 늘어나고 있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들과, 각각의 삶의 패턴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을 결혼을 원래 해야 하는데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상태로 규정하기 보다는, 결혼을 전제로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상태로 바라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미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미혼에 대한 인식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미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결혼 적령기에 놓인 성인남녀가 결혼과 관련된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을 파악하여, 미혼에서 기혼으로의 이행을 이끄는 것은 결혼 및 출산으로의 과정을 이끌 수 있는 발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데서 의미가 있다. 또한, 미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미혼이라는 그 자체로서, 결혼 전의 생애과정에 대한 이해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먼저, 미혼에 대한 인식 척도를 개발하기에 앞서 연구 1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과 혼자 살 때 좋은 점, 나쁜 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물어보는 개방형 질문을 구성하여, 미혼 인식에 대한 기초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1의 각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반응에 대하여 내용분석과 범주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 2에서는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 혼자 살 때 좋은 점,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는 미혼에 대한 인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 연구 1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편의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

하는 20~50대의 미혼자와 기혼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 각각 250명이 참여하였다. 총 500명 중 자신의 연령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모든 설문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자료에 총 490명(남자: 244명(20~30대: 117명, 40~50대: 127명), 여자 246명(20~30대: 130명, 40~50대: 116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35.32세(SD=12.57, 남: 36세(SD=12.99), 여: 34.37세(SD=12.10)이었다.

### 측정도구

2009년 3월~6월에 걸쳐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인터뷰와 4개의 개방형 질문을 실시하였다. 각 참가들에게 묻는 4개의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청년기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 질문 2: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때 좋은 점 혹은 유리한 점은 무엇입니까? (혼자 살 때 좋은 점). 질문 3: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 때 나쁜 점 혹은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혼자 살 때 나쁜 점). 질문 4: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개인적 및 사회적 요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혼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

### 자료분석

각 개방형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얻은 응답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반응에 대하여 내용분석과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개방형 질문지를 통해 추출한

반응들을 연구진 2명과 사회심리학 박사 2명, 발달심리학 박사 2명이 독립적으로 내용분석을 한 후,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였다. 개별적으로 실시한 내용분석과 범주분석 결과를 다시 비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항을 완성하였다. 각 결과가 표 1에서 표 4까지 제시되어있다.

## 결 과

각 질문에 대한 반응은 내용을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 관계적 측면, 성격적 측면, 자아관련 측면, 가족적 측면 및 사회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들을 묻는 질문에서, 범주별 빈도는 경제적 측면이 37.5%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측면이 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안정된 수입이 16.2%로, 관계적 측면에서는 지속적 연락 가능한 이성친구가 10.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성격적 측면에서는 대인관계의 친화력 및 사교성이 3.1%, 자아관련 측면에서는 건강한 체력이 3.3%로 가장 높게 나왔다. 가족적 측면에서는 가족의 지속적 지원이 1.8%, 사회제도 측면에서는 국가의 복지혜택이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듯이, 혼자 살 때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범주별 빈도는 경제적 측면이 42.1%로 가장 높았고, 성격적 측면이 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녀에게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절감이 15.2%, 관계적 측면에서 자유로운 성생활이 10.7%, 성격적 측면에서 장래의 불안감이 1.7%, 자아관련측면에서 자아목표실현이 3.5%, 가족적 측면에서 양육의

표 1.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내용분석

범주	내용(대표적 예들)	범주별 빈도(%)
경제적 측면	보장성 있는 안정된 수입이 필요하다.	960(37.5)
	사회활동 가능한 경제적 능력(직장, 기술능력 등)이 필요하다.	
	노후 보장 보험, 연금 및 저축이 필요하다.	
관계적 측면	지속적 연락 가능한 이성 친구가 필요하다.	785(30.7)
	여가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교모임이 필요하다.	
	데이트 상대(성관계 포함)가 필요하다.	
성격적 측면	대인관계 친화력 및 사교성이 필요하다.	292(11.4)
	안녕감 있는 생활을 유지할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긍정적 사고력(밝고, 명랑)이 필요하다.	
자아관련 측면	건강한 체력이 필요하다.	279(10.9)
	취미 및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필요하다.	
가족적 측면	가족의 지속적 지원(정서, 물질)이 필요하다.	134(5.2)
	가족간의 원만한 의사소통력(유대감)이 필요하다.	
	가족(부모, 형제소속)이 필요하다.	
사회제도 측면	국가의 복지혜택(연금, 건강보험제도)이 필요하다.	110(4.3)
	(노년기)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	

표 2. “혼자 살 때 좋은 점”에 대한 내용분석

범주	내용(대표적 예들)	범주별 빈도(%)
경제적 측면	자녀에게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이 없다.	854(42.1)
	경제적 여유(저축포함)가 생긴다.	
	전반적 생활비가 적게 든다.	
관계적 측면	자유로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583(28.7)
	이성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자유롭다.	
	친교활동이 자유롭다.	
성격적 측면	장래(가정, 직장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	87(4.3)
	스트레스(대인관계 및 의무, 책임감에 대한)가 적다.	
	고민거리(가족에 대한 고민 포함)가 적다.	
자아관련 측면	자아목표실현(자아성취감 향상)이 가능하다.	278(13.7)
	자신 혼자만의 삶에 집중(일, 학업)할 수 있다.	
	여가, 취미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족적 측면	양육의 스트레스가 없다.	228(11.2)
	가정이라는 제도의 의무, 책임감이 없다.	
	배우자 집안과의 갈등 없다.	

표 3. “혼자 살 때 나쁜 점”에 대한 내용분석

범주	내용(대표적 예들)	빈도(%)
경제적 측면	노후생활이 부담스럽다. 저축이 어렵다.	252(16.1)
관계적 측면	정서적 지지자가 없다. 대화상대가 없다. 부부애를 나눌 수 없다.	346(22.2)
성격적 측면	외로움을 겪는다. 정서적 안정감을 갖기 어렵다. 사회성이 결여 될 수 있다	485(31.1)
자아관련 측면	노후에 쓸쓸할 수 있다. 목표의식이 없을 수 있다.	68(4.3)
가족적 측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서 해결해야한다. 의지할 가족이 없다. 가족간의 모임이 어색하다.	243(15.6)
사회제도 측면	사회적 편견이 있다.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성희롱을 겪을 수 있다.	166(10.7)

표 4. “혼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한 내용분석

범주	내용(대표적 예들)	빈도(%)
경제적 측면	경제적 자립이 부족하다. 경제적 불안감이 있다.(높은 소비성향)	395(20.9)
관계적 측면	의지할 주변사람이 없다. 부부 및 가족 동반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다. 친구, 회사동료와 대화 주제가 달라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	346(18.3)
성격적 측면	외로움이 있다. 미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신경이 예민해 진다.	485(25.7)
자아관련 측면	노화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자기관리가 소홀해진다.	143(7.6)
가족적 측면	부모와 가족의 걱정 및 압력이 있다. 명절 스트레스가 있다. 부모에 대한 도리, 의무감이 있다.	288(15.2)
사회제도 측면	독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있다. 사회적 보장 혜택이 없다.(면세, 분양, 가족 수당 등) 사회적 지위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다.(진급에 어려움)	233(12.3)



스트레스가 없음이 4.4%로 각 범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듯이, 혼자 살 때 나쁜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범주별 빈도에서 심리적 측면이 31.1%로 가장 높았고, 자아관련측면이 4.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격적 측면에서 외로움이 11.9%, 관계적 측면에서 정서적 지지가 7.7%, 경제적 측면에서 노후생활 부담감이 10.7%, 가족적 측면에서 어려운 일 혼자해결이 4.3%,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편견이 3.2%, 자아관련 측면에서 노후의 쓸쓸함이 3.2%로 각 범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듯이, 혼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에서는 범주별 빈도에서 심리적 측면이 25.7%로 가장 높았고, 자아관련 측면이 7.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심리적 측면에서 외로움이 9.2%,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적 자립의 부족이 7.5%, 관계적 측면에서 의지할 주변인 부재가 6.8%, 가족적 측면에서 부모와 가족의 걱정 및 압력이 5.7%, 자아관련 측면이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가 3.2%로 각 범주에서 높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청년기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자 할 때 필요하고 유리한 점들은 주로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되고, 혼자 사는 것에 부정적이고 방해가 되는 요인은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 연구 2

### 방법

#### 연구대상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총 1,200명(남자: 600명, 여자: 600명, 20~30대: 600명, 40~50대: 6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몇 33.90세(SD=12.32, 남: 34.37세(SD=12.37), 여: 33.43세(SD=12.27)였다.

#### 측정도구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 1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이에 관련된 43문항을 선정하였다. 혼자 살 때 좋은 점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1에서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총 65문항을 구성하였다. 혼자 살 때 나쁜 점과 혼자 사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은 비슷한 반응이라 두 반응을 합하여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이라 명하고,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에 대한 최종 3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3월 5일~2010년 7월 20일 까지 진행되었다.

## 결 과

연구 2의 총 참여자 1,200명 중에서 800명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max 직각회전을 이용하였고, 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과 scree plot을 고려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문항 삭제 기준은 요인계수 .6 이하인 문항, 여러 요인에 중복되는 순수하지 못한 문항을 일차적으로 제거하였다. 전체문항과 요인 간에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였고, 내적 합치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문항 등을 제거하였다. 그 결과가 아

래에 제시되어 있다.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 표 5에서 보듯이, 43문항 중 5개 요인, 24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문항별 요인 부하량은 최소 .61에서 최고 .90을 나타냈다. 5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61.7%

표 5.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의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자아 성숙	경제 력	사회 복지	대인 관계	가족
의지력	.71				
정서적 안정감	.70				
긍정적 사고	.69				
성실성	.65				
자신감	.65				
사교성	.65				
자기관리능력	.69				
자기에 대한 애착	.64				
삶의 목표	.62				
적응력	.61				
-----					
경제적 능력		.81			
안정된 수입		.77			
저축		.74			
노후연금		.65			
-----					
(사회적)노인시설			.91		
노후지원 사회복지제도			.89		
국가의 복지능력			.78		
-----					
이성 친구				.86	
데이트 상대				.80	
동성 친구				.64	
사교 모임				.62	
-----					
가족지원					.80
가족					.74
가족과의 소통					.72
-----					
아이겐 값	4.96	2.75	2.58	2.50	2.02
설명량(%)	20.68	11.45	10.74	10.40	8.45
누적설명량(%)	20.68	32.12	42.86	53.26	61.71
내적일치도	.63	.64	.68	.72	.67

였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요인은 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특성들을 기술하고 있어서 ‘자아성숙’으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경제적인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제력’으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미래 혼자 살게 될 것을 대비하여 사회적인 혜택에 대한 준비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회복지’로 명명하였다. 4요인은 주변인 특히 친구, 친목모임을 통해 정서적인 즐거움을 얻는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서 ‘대인관계’라고 명명하였다. 5요인은 가족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가족’이라 명명하였다.

**혼자 살 때 좋은 점:** 표 6에서 보듯이, 65문항 중 6개 요인, 29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문항별 요인 부하량은 최소 .46에서 최고 .83을 나타냈다. 6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61.41%였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요인은 자기 자신의 성장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자기성장’으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가정환경에서 겪게 되는 양육, 배우자와 같은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정 관련 자유’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이성과의 만남의 방법, 만남과 헤어짐,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유연애’로 명명하였다. 4요인은 비용지출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여유’라고 명명하였다. 5요인은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안정적 생활’이라 명명하였다. 6요인은 여러 주변인들과 만남의 기회, 시간적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대인관계’라 명명하였다.

표 6. “혼자 살 때 좋은 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자기 성장	가정 관련 자유	자유 연애	경제적 여유	안정적 생활	다양한 대인 관계
내 마음대로 나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76					
기혼자보다 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70					
기혼자보다 나의 삶에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	.70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	.67					
기혼자보다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66					
일에 열중할 수 있어서 성취수준이 높다.	.66					
기혼자보다 일이나 학업에 더 몰두할 수 있다.	.64					
기혼자보다 목표실현을 더 잘 할 수 있다.	.64					
-----						
기혼자처럼 자식 걱정 할 필요가 없다.		.81				
기혼자처럼 배우자 걱정 할 필요가 없다.		.79				
기혼자처럼 양육스트레스가 없다.		.75				
기혼자처럼 가족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74				
기혼자처럼 배우자 집안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70				
기혼자처럼 가족들 때문에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없다.		.47				
-----						
이성교제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81			
기혼자처럼 한 명의 이성에게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			.81			
어떤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다.			.78			
기혼자와는 달리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다.			.71			
성생활이 자유롭다.			.69			
기혼자와는 달리 여러 명과 이성 관계를 유지해도 된다.			.55			
-----						
가족을 위해 소비하는 기혼자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84		
기혼자처럼 자녀들을 위해 지출할 필요가 없다.				.80		
기혼자처럼 가족을 위한 지출이 없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다.				.78		
-----						
기혼자보다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적다.					.78	
기혼자처럼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실감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75	
기혼자처럼 배우자 및 주변인들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					.69	
-----						
기혼자처럼 주변인들과의 만남에 제약이 없다.						.74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친구들과 자주 만날 수 있다.						.73
기혼자보다 친교활동(동호회, 동창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70
-----						
아이겐 값	4.33	3.65	3.53	2.23	2.13	1.93
설명량(%)	14.93	12.58	12.19	7.70	7.33	6.65
누적설명량(%)	14.93	27.52	39.71	47.42	54.80	61.41
내적일치도	.73	.72	.76	.75	.74	.74

**혼자 살 때 어려운 점:** 표 7에서 보듯이, 총 59문항 중 6개 요인, 총 31문항이 추출되었으며 문항별 요인 부하량은 최소 .42에서 최고 .88을 나타냈다. 6개 요인의 총 설명량은 64.75%였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1요인은 혼자 살아감에 있어 기분의 부자유, 우울, 주변인들과의 소통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느끼는 정서적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고독’으로 명명하였다. 2요인은 가족모임, 부모와의 관계와 같이 친족들과의 사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가족압력’으로 명명하였다. 3요인은 주변인들에 대한 개인적 인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동안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모습에 대한 인식들로 인하여 고정관념들이 생겨졌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정적 사회인식’으로 명명하였다. 4요인은 비용지출, 수입 및 미래 경제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경제적 불안정’이라고 명명하였다. 5요인은 결혼 후 가족으로 인한 즐거움, 책임감 등 결혼으로 가족을 갖지 못해 겪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가족의 부재’라 명명하였다. 6요인은 혼자 살게 될 것을 대비하여 사회적인 혜택과 부족한 행정제도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악한 사회복지’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탐색하여 구성한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 ‘혼자 살 때 좋은 점’,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의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2에 참여한 총 1,200명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8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00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AMOS 프로그램을 사용했

으며 최대우도추정치(maximum likelihood estimates)를 통해 분석하였다. 성인 남·녀의 미혼에 대한 인식 척도의 요인구성 및 패턴을 검증하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Hoyle 와 Panter(1995)가 추천한 표준X2 (CMIN/DF),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MSEA)을 통해 성인 남·녀의 미혼에 대한 인식 척도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필요조건”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산출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측정모형의 지수가 절대적합지수인 GFI, AGFI와 증분적합지수인 NFI에서 제시된 기준에 적합함을 보였다. RMR 값이 .041로 이 또한 적절한 수치를 나타냈다. CMIN/DF 지수는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3.0이하(보다 엄격하게는 2.0이하)이면 수용 할만한 것으로 보아 본 필요조건 모형의 적합도는  $X^2/df=2.039$ 로서 본 연구의 모형이 주어진 자료에 대체로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FI는 .955이며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90$ 이상으로 측정모형에 적합하였으며, RMSEA는 .048으로 수용수준 .08이하로 나타나 측정 모형이 적합함을 보였다.

**“좋은 점” 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산출하여 표 9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측정모형의 지수가 절대적합지수인 GFI, AGFI와 증분적합지수인 NFI에서 제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RMR값이 .050 이하에 적합함을 보였다. 이는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커서  $\chi^2$  값을 자유도(df) 나눈 값인 CMIN/DF의 값을 보았다(이학식, 임지훈, 2009: 전경숙,

표 7.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	고독	가족 압력	부정적 사회적 인식	경제적 불안정	가족의 부채	열악한 사회복지
여러 대인관계나 생활환경에서 종종 서러움을 느낀다.	.82					
혼자 생활하다보니 사교적인 측면이 부족하다.	.82					
기혼자보다 우울함을 더 느낀다.	.81					
기혼자보다 소외감을 더 많이 느낀다.	.79					
기혼자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좀 떨어진다.	.78					
기혼자에 비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적다.	.73					
기혼자처럼 아프거나 위급 시 도와줄 사람이 없다.	.60					
기혼자처럼 가족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없다.	.54					
미혼으로 사는 것이 부모님께 죄송하다.		.80				
미혼이라 명절 때 주변인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74				
가족들이 결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압력을 준다.		.71				
친척들이 결혼하라고 압력을 준다.		.70				
가족모임이나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족과의 소통이 어렵다.		.70				
친척모임이나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척과의 소통이 어렵다.		.56				
미혼에 대한 주변인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82			
미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건디기 힘들다.			.81			
미혼에 대해 주변인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79			
사회적으로 결혼을 너무 당연시 여긴다.			.59			
관심사와 생활방식이 달라 기혼자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42			
혼자 경제력을 책임져야하는 게 불안하다.				.88		
미혼으로 살 만큼 경제적 자립심이 부족하다.				.85		
기혼자에 비해 조기퇴직 등 직장생활에서 불리하다.				.70		
기혼자보다 퇴직 후 노후가 더 불안정하다.				.70		
아플 때나 힘들 때 나를 돌봐줄 가족이 없다.					.86	
힘들 때 의지할 가족이 없다.					.84	
가족애를 느낄 수 없다.					.77	
자식을 보며 삶을 즐길 수 없다.					.72	
현실적으로 노후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83
미혼자들이 이용할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80
미혼자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열악하다.						.77
기혼자에 비해 호적문제로 더 어려움을 겪는다.						.58
아이젠 값	4.81	4.22	3.80	3.57	2.91	2.67
설명량(%)	14.16	12.42	11.19	10.51	8.57	7.87
누적설명량(%)	14.16	26.58	37.78	48.30	56.87	64.75
내적일치도	.64	.56	.54	.60	.67	.57

표 8. “필요조건”의 5요인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Model	CMIN/DF	RMR	GFI	AGFI	NFI	CFI	RMSEA
Null model	2.04	.04	.92	.90	.91	.96	.05
해석기준	<.30(2.0)	<.05	>.90	>.90	>.90	>.90	<.08

표 9. “좋은 점”의 6요인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Model	CMIN/DF	RMR	GFI	AGFI	NFI	CFI	RMSEA
Null model	2.59	.05	.87	.84	.85	.90	.06
해석기준	<.30(2.0)	<.05	>.90	>.90	>.90	>.90	<.08

2010에서 재인용). CMIN/DF 값이 2.584이므로, 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3.0이하(보다 엄격하게는 2.0이하)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보아 본 좋은 점의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다. 또한 CFI는 .904이며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90이상으로 측정모델에 적합하였으며, RMSEA는 .063으로 수용수준 .08이하로 나타나 측정 모델이 적합함을 보였다.

**“어려운 점” 요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의 6요인구조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지수들을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측정모형의 지수가 절대적합지수인 GFI, AGFI, NFI가 제시된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RMR값이 .062로 엄격한 기준인 .05 이하에는 못 미치지만 .10이면 수용할만하다는 기준에 부합했다. 따라서 ‘어

려운 점 6요인모형’은 CMIN/DF 값이 2.521이므로, 지수의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높으며, 3.0이하(보다 엄격하게는 2.0이하)이어서 수용할 만한 것으로 보아 수용할 수 있다. RMR .079으로 .10이하이므로 수용가능하며, RMSEA .062으로 수용수준 .08이하, CFI.914로 수용가능 .90이상으로 값이 모두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수용할만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종합논의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미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관심을 두고,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1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내용분석과 범주분석을 실시

표 10. “어려운 점”의 6요인모형 확인적 요인분석

Model	CMIN/DF	RMR	GFI	AGFI	NFI	CFI	RMSEA
Null model	2.52	.08	.86	.82	.87	.91	.06
해석기준	<.30(2.0)	<.05	>.90	>.90	>.90	>.90	<.08

하였고,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들, 혼자 살 때 좋은 점, 나쁜 점, 방해가 되는 점들은 각각 경제적 측면, 관계적 측면, 성격적 측면, 자아관련 측면, 가족적 측면, 사회제도 측면이라는 범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있는 범주들이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데 좋은 점은 결혼을 안 하게끔 혹은 방해가 되는 요인들과 관련 있으며, 혼자 사는데 나쁜 점은 결혼을 하게끔 혹은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1차적으로 결혼을 왜 안하는지에 대한 것을 기초로, 결혼을 하게끔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연구 1의 자료를 근거로 연구 2에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혼자 사는데 필요한 조건, 좋은 점, 어려운 점에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 성인의 미혼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토대로, 미혼에 대한 인식에 대해 각 측면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혼자 살 때 필요한 조건은 자아성숙, 경제력, 사회복지, 대인관계, 가족 요인들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혼 전 미혼의 상태에 있는 성인들과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여러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수록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력, 주변의 압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한 이 결과는 혼자

사는데 필요한 조건을 개인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자아성숙, 경제력, 대인관계와 같은 요인들은 미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추구하거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사회복지, 가족 요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혼자 살 때 좋은 점에는 자기성장, 가정관련자유, 자유연애, 경제적 여유, 안정적 생활, 다양한 대인관계 요인이 해당되었다. 이는 결혼을 지연시키고 미혼 시기를 증가시키는 것과 결혼 전에 겪게 되는 미혼으로서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측면이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서 자기 성장, 경제적 여유, 가정관련자유 요인들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된다. 즉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미혼자들보다 자기 개발, 자기 성취 등을 할 기회가 줄어들며, 가족과 자녀로 인한 경제적 지출을 증가하고, 가족 형성으로 인한 또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아관련 측면인 자기 성장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성인으로서의 삶을 가족이 아닌, 보다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하여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좀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혼을 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혼과 미혼이라는 기준만으로도 가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에서 나 중심의 개인적인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셋째, 혼자 살 때 어려운 점은 고독, 가족압력, 부정적 사회인식, 경제적 불안정, 가족의 부재, 열악한 사회복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혼자 사는데 필요한 조건들, 혼자 사는데 좋은 점에서 밝혀진 요인구조에 비해서 고

독, 압력, 부정적 인식, 불안정 요소, 가족 부재와 같은 매우 심리적인 요소들이 두루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혼자 사는 것은 경제적 여유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경제력을 책임져야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단지 경제적 소득 수준의 측면을 넘어서는 매우 심리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의미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이러한 영향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미혼에서 기혼으로 이행하게끔 촉진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미혼으로 사는 삶과, 기혼으로 사는 삶을 되돌아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미혼이라는 것 자체가 성인남녀의 발달시기에 놓여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그동안 결혼을 성인기에 중요한 인생사건으로 보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상태가 가진 특징들이나 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드물었다. 따라서 미혼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은 미혼은 성인 남녀가 겪는 인생사건이며 어느 단편적인 요인에 따른 산물이라기보다는 관련 개인 및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총체적 산물임을 시사한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밝힌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율 증가와 더불어, 출산율 감소, 사망률 감소, 수명연장,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기타 경제적 인구 성장률 감소 등에 대해 대비 및 계획하는 것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고려해 보면, 첫째, 미혼에 대한 성별과 연령별 구분만으로 인식 척도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교육 수준 및 직업군, 경제수준을 고려한 세부적인 미혼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만들어진 척도를 타당화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더욱 구체화되고 타당화된 척도가 완성되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미혼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집단 등 대인관계 속에서 어울림에 대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미혼으로써의 삶도 보다 행복하고 안녕감 있는 삶을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한 혼자 사는데 필요한 조건들, 혼자 사는데 좋은 점, 혼자 사는데 어려운 점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아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이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측면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쳐서 혼자 사는 삶을 이끌고, 이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미혼에 대한 인식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거나, 예측하거나,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신, 이선미 (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학회지, 9(1), 27-43.



- 김정례 (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전길양, 김양호 (2002). 사회변화와 결혼.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문소정 (1994). 가족이데올로기. 여성한국사회연구회 4회 심포지움.
- 박은주, 전형미 (2011). 여대생의 직업의식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87-105.
- 손승영 (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0), 285-316.
- 송재희 (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 유영주 (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127-150.
- 이삼식 (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11, 5-17.
- 전경숙 (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태연 (2006). 사회적 독립가능성과 결혼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직업의 상대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2), 143-162.
- 정현숙, 최연실, 유계숙 (1998). 결혼학개론. 상명대학교 출판부.
- 정현아 (1984). 여대생의 자아실현성에 따른 결혼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혜자, 방희정 (2005).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95-112.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 황지영 (2007).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한국기독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uss, D. M. (1985). Human mate selection. *American Psychologist*, 73, 47-51.
-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 Goode, W. J. (1982). *The family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ill.
- Jacobs, H. A. (1996). Gender inequality and higher educ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53-185.
- 논문투고일 : 2012. 1. 26.  
1차 심사일 : 2012. 2. 1.  
게재확정일 : 2012. 2. 21.

## A Development of Awareness Scale of Korean Men and Women on Singleness

**Taeyun Jung**

**Hyejin Jung**

**Hwari E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main studying proble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scale which examines awareness of singleness for Korean men and women. So, firstly, study 1 fulfilled open survey related to condition for solitary life,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factors disturbing it for 490 unmarried and married people (244 men and 246 women) who are living in Seoul and capital area. And then, content analysis and category analysis were analyzed for their responses. As the result, each questionnaire was divided into economic aspect, relative aspect, characteristic aspect, eco related aspect, family aspect and social system aspect. Study 2 organized questionnaires for condition for solitary life,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based on the material obtained in study 1 and the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for total 800 adults (400 men and 400 women) who are living in Seoul, capital area, Incheon and Chungnam. As the result, the condition for solitary life extracted 5 factors including ego-maturity factor (24 questionnaires, total explanation quantity: 61.7%), strengths of solitary life extracted 6 factors including self-growth factor(29 questionnaires, total explanation quantity: 61.4 %) and weaknesses of solitary life extracted 6 factors including solitary factor(31questionnaires, total explanation quantity: 64.75 %). For verifying the suit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 as the result of conduct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400 people (200 men and 200 women), the suitability of awareness scale model of men and women on singleness was verified. Those results were discussed from the aspect of variables and phenomenon related to singleness and marriage of Korean society.

*Key words* : Single, marriage, childbirth, and scale development